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주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하나님의 왕국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음

성경: 마 24:14, 28:18-20, 막 1:14-15, 살전 2:12

I.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 마 24:14상.

-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신성한 영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어 자신이 의도하시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는 범위이다 — 막 1:15, 요 3:3, 5, 마 12:28, 계 11:15.
- B. 우주 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반역이다 — 사 14:12-14.
 - 1.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마 12:26, 엡 2:2.
 - 2. 사람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인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 — 창 3:6, 11, 롬 5:12, 요일 3:4.
- C. 왕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권위의 다스림 아래로 이끄시어, 사람들을 그분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 곧 그분의 왕국이 되게 하신다 — 마 24:14, 계 1:5-6.
 - 1. 신약은 왕국의 노선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참된 복음이므로, 복음을 알려면 먼저 왕국을 알아야 한다 — 막 1:14-15, 행 8:12.
 - 2. 복음은 왕국을 위한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반역적인 죄인들이 구원받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막 1:14-15, 마 4:17, 행 8:12.
 - a.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모두 왕국을 위한 것이다. 왕국이 중심이자 축이다 — 요 3:16, 행 20:24, 4:12.
 - b.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왕국 안으로 이끈다.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에 강조점을 둔다 — 마 24:14.
 - c. 왕국 복음은 믿는 이들을 신성한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여, 신성한 왕국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게 한다 — 살전 2:12.
- D.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왕국을 위해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 마 3:2, 4:17, 행 17:30.
 - 1. 회개한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반역적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이제 복종함으로 주님께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 3:2, 4:17.
 - 2.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 뉘우치는 것이며,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다 — 눅 3:3, 8, 5:32, 17:3, 행 17:30-31.
 - 3. 회개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즉 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 막 1:15, 마 3:2, 4:17.

- E.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도록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 될 것이다 — 마 24:14.
1.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있는 첫째 봉인의 흰색 말로 상징된 이러한 전파는 이 시대가 종결 되는 징조가 될 것이다.
 2. 왕국 복음은 반드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 — 마 24:14, 살전 1:8.

II.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 마 28:19.

- A.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 마 28:1-10, 18.
- B. 모든 권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게 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 — 마 28:18-19.
1.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뿐 아니라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 의해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왕국의 문제이다.
 2.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그분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 살전 1:9, 2:12, 계 1:5-6, 9, 5:9-10.
 3.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내재적인 목적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그들을 천국의 시민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 마 24:14, 28:18-19.
- C.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부활의 분위기와 실재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재 안으로 이방인들을 침례 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 마 28:19.
1.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안으로’라는 말은 연결을 가리킨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2. 신성한 삼일성을 위해 한 이름이 있다 — 마 28:19.
 - a.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 b.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 D.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재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 마 28:19.
1. 땅에 속한 사회와는 달리, 하늘에 속한 왕국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로 형성될 수 없다 — 고전 15:50.
 2.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은 오직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으로 잠긴 사람들과 그들 안으로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건축된 사람들로만 조성될 수 있다 — 롬 6:3-4, 14:17, 갈 3:26-27, 4:19, 5:21, 엡 3:14-19, 5:5.

- E.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막 침례 받은 이들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 — 마 28:19.
- F.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 마 28:20하.
1. 하늘에 속한 왕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 마 1:23.
 2. 그분은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권위를 가지고 부활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마 28:20.
 3.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 마 18:20.
- G. 부활 안에서 주님은 현존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분의 권위와 위임과 위치를 갖고 있다 — 마 6:10, 33, 13:18-23, 28:18-20.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산 위에서 그분을 만남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한다. 왕국 헌법이 산에서 반포되었고, 하늘의 왕은 높은 산에서 변형되었으며, 이 시대에 관한 예언도 산에서 주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제자들은 또다시 산으로 가야 했다. 우리는 오직 높은 산에서만 신약 경륜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경배받으심

계속해서 17절은 “그분을 뵈고 경배하였으나, 몇몇은 의심하였다.”라고 말한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왕을 뵈었을 때 경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의심했는데, 곧 부활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음을 선포하심

1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마태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요한의 기록과는 매우 다르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문들이 닫힌 방 안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요 20:19).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으므로 겁에 질려 있었다. 제자들이 생명에 의해 강하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거룩한 호흡을 들이마시라고 말씀하셨다(22절). 마태의 기록은 얼마나 다른가!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틀림없이 그분은 밤이 아닌 낮에 산 위에서 그들을 만나셨다. 더욱이 그분은 산 위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숨을 내쉬시며 거룩한 호흡을 들이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에 서는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이다. 요한의 관심은 생명이었고, 생명은 호흡을 요구한다. 그러나 마

태의 관심은 왕국이었고, 왕국은 권위를 요구한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린양들을 돌보고 주님의 양 무리를 먹이기 위해 생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린양들을 먹이는 것에 관한 말이 전혀 없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왕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19절). 이것은 권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부활은 생명과 능력과 호흡과 목양의 문제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의와 권위와 민족을 제자로 삼는 문제이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심

19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한다. 모든 권위가 하늘의 왕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날 까지도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왕국,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과의 차이는, 복음 전파는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것은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데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왕국의 문제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을 말씀하신다.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싹트게 함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침례자 요한의 천거하는 사역은 다만 물로 주는 예비 단계의 침례로 시작되었다. 이제 하늘의 왕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침례는 물로 하는 보이는 방면과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두 방면이 있다 (행 2:38, 41, 10:44-48).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이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재이다.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가 없다면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는 헛된 것이고,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가 없다면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는 추상적이며 비실재적이다. 두 방면이 모두 필요하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침례를 명령하신 후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온 교회에게 침례를 주셨다(고전 12:13). 오순절날(행 1:5, 2:4)에는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집(행 11:15-17)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 그 후 이것에 근거하여 제자들은 새로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행 2:38)에게 물속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롬 6:3-4),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갈 3:27), 삼일 하나님 안으로(마 28:19),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고전 12:13) 침례를 주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물은 침례 받는 사람들의 옛 역사를 종결하는 무덤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삼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단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은 곧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싹트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침례는 천국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안으로’는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동일한 헬라어가 사도행전 8장 16절, 19장 3절과 5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15절에서 사용되었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삼일성을 위한 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의 다른 모든 책보다도 신성한 삼일성이 더 충만하게 계시된 두 권의 책이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도록,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계신 신격의 비밀을 계시한다. 한편 마태복음은 왕국을 구성하기 위해, 셋 모두에게 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실재를 열어 보여 준다. 마태복음 1장에서 성령(18절)과 그리스도(아들-18절)와 하나님(아버지-23절)께서 사람 예수님을 산출하시기 위하여(마 1:21) 함께 계시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여호와 구원자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마태복음 3장에서 아들은 열린 하늘 아래 침례의 물속에서 계셨고, 그 영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광경이 제시된다(16-17절). 12장에서 아들은 사람의 신분으로 그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가져오셨다(28절). 16장에서 아버지는 왕국의 생명 맥박인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아들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다(16-19절). 17장에서 아들은 변형되셨고(2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확증되셨는데(5절), 이로써 왕국의 출현의 축소판을 보여 주셨다(마 16:28). 결국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부활의 분위기와 실재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재 안으로 이방인들을 침례 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그 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이고(행 8:16, 19:5),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주는(갈 3:27, 롬 6:3) 것으로 계시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분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재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왕국은 땅의 사회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고전 15:50) 사람들로 형성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으로 잠긴 사람들과 그들 안으로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건축된 사람들로만 조성될 수 있다.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심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왕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1:23). 여기에서 그분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곧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권위를 가지고 부활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어디에서 모이든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18:20).

주님의 승천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16:19)과 누가복음(24:51)에만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심지어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한 분이로서, 그분은 결코 그들을 떠나실 수 없으시고, 떠나시려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실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승천이 언급되지 않는다.

왕국 백성과 함께 왕국 안에 계신 왕으로서 주님은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은 모든 날 안에 포함되어 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파루시아, 곧 그분께서 오시는 때가 될 이 시대의 끝 날을 언급하는 것이다. 시대의 종결, 곧 시대의 끝 날은 대환난일 것이다. 우리는 그 시기 동안에 이 땅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임재, 곧 그분의 파루시아 안으로 휴거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왕국의 문제이다.

주님의 의와 함께 그분의 부활 안에서 왕국은 현존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권위와 위임과 지위를 갖는다. 이런 방법으로 왕국은 확산되고 있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72장, 822-827쪽)*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신성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다.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서 삼일 하나님은 완성되었고 완결되었다. 신성한 삼일성이 완성되고 완결되시기 위해, 그분은 인성을 취하는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다. 그분께서 단지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은 최종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이 되시지는 못했을 것이다.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곧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분에게는 신성뿐 아니라 인성도 필요하셨다.

또한 그분은 이름답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다. 아담 안에서의 죽음은 추하고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러우며,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완성 곧 완결을 위해 죽음을 필요로 하셨다. 신성한 삼일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능하시다. 그러나 만일 이 아름다운 죽음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다.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이는 요소를 가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약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약 안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분의 죽음의 요소도 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세균들'을 모두 제거했다. 이러한 죽음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더해졌다. 이러한 성취된 죽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부활의 분위기와 실제 안에서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곧 신성한 삼일성의 인격과 실제 안으로 침례를 줌으로 모든 민족을 왕국 백성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신성한 삼일성이 완성되고 완결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 곧 완결되신 신성한 삼일성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우리는 그들을 완성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고 있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의 이름은 셋-하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 이름 안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다. 주님은 우리의 전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으시려는 그분의 갈망의 배경 안에서 이 신성한 칭호를 계시하셨

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야말로 그분을 영접한 이들을 두어야 할 바로 그 장소이시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준다. '제자'라는 단어는 강한 단어이다. 이 단어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다.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줌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아야 했다. 이것은 제자로 삼는 것이 침례 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침례 주어 한 인격, 곧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음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서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즉시 침례를 주어야 한다. 침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 안으로 그들을 넣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넣는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70-72쪽)*